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水害復舊工事에 賦役撤廢
全般的으로 廢止하라

一

今番 大水害地를 視察한 大野政務總監은 今後 水害復舊工事에는 賦役을 廢止하고 全部 勞貸을 주어 시키겟다 言明하얏다. 水害復舊工事거나 어떤工事거나 일을 시키고 그 報酬로 勞貸을 주는것은 正當한일이거니와 大野總監이 새삼스러히 勞貸을 주어 工事를 시키겟다 言明한것은 多少 意外이나 그러나 이言明이 一般의 注意를 끌게되는것은 무엇인가.

二

널리 알려저잇는것과 가티 朝鮮에는 賦役制度가 아직 廣範圍로 남어잇다. 所謂 道路品評會의 美名으로 各面, 各郡이 그 管內의 道路工事에 그管內住民으로하야금 賦役에 나게하야 道路工事의 完美를 競爭케 하는것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그 洞里堤防의 築石, 橋梁의 架設, 道路의 開鑿, 郡廳, 警察署, 駐在所, 普通學校의 建築에 賦役을 나게하고 甚至於 郡守, 署長, 校長, 駐在所首席의 舍宅建築에 寄附又는 賦役을 課하는것도 드물지 안타. 무엇보다도 過去의 治山治水의 大部分이 이 賦役으로서 되엇슴을보면 這間 얼마나 人民에게 賦役이 課해젓는지를 想像할수잇슬것이다.

三

이것은 自己洞里일을 自己洞民이 한다는 封建時代의 自治觀念에서 나온것이나 그러나 現在와가티 財政制度가 確立하야 郡面財政은 地方費로서 當然히 支出하게되는 制度下에서 賦役制度가 尙存한다하는것은 矛盾이다. 人民은 納稅의 負擔이 잇스니 當然히 그納稅中에서 工事費를 支出하는것이 當然하다. 그러므로 細民은 納稅를 할지언정 勞貸을 밧고 勞働할수가 잇슬것이니까 그리 過度의 負擔은 아니다. 그런데 賦役이란 一種 無償勞働을 시키고 國家나 地方自治體가 泰然하다는 것은 法理論으로도 되지안커니와 細民에게는 二重의 負擔이라 안흘수업다.

四

當局은 今次 水害復舊工事에 잇서서 賦役制度를 廢止하고 勞賃制度를 써서 災民에게 復舊의 힘을 돕겟다하니 大幸한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當然히 할일을 只今에 行함뿐이니 이것으로써 當局의 措處를 새삼스러히 論할 理由는 업다. 그와 反對로 이것을 機會로 吾人은 全朝鮮에 施行되고잇는 賦役制度를 即時 撤廢하라 主張한다 當然히 支拂할 勞貸을 支出치 안는것은 現代 理論으로 보아도 맛지안커니와 이때문에 細民의 當然히 밧어질 貧窮의 泰劫으로 細民經濟에 如何한 影響이 갈것인가를 생각하면 實로 重大한 問題라 안흘수업다. 當局은 모름직이 이 不合理한 封建的 遺制인 賦役制度를 即時 全廢할것이다.

統一完成次、蔣氏 北中政權崩壞를 策
馮玉祥氏北中에서活動開始
全中國에排日氣勢

【東京電話同盟】中央對西南抗爭의 餘波로 從來比較的日本에 好感이든 西南一帶에 排日空氣가 勃興하야 成都事件으로全中國이 모다 排日의 一色으로 塗抹되엇는觀이 잇는데 七日政府側에 達한 報告에依하면 日滿中三國의 緩衝地帶인北中治安維持의責에 當한 宋哲元氏麾下第二十九軍將僚間에 奇怪한 排日動搖의 色이 感知되는것이 確實하다 蔣介石氏는 全中統一의 野望에 불타 北中政權崩壞工作의 一端으로 馮玉祥氏를 北中에 潛入케 하야 馮氏가 舊部下山東의韓復榘氏以下冀察政權의 巨物宋哲元氏懷柔의 손을 뻐치고잇섯는데 馮玉祥氏의 懷柔는 드데여 三十七師長馮治安氏를 動하게되여 宋哲元氏의 威令이 施行되지안코 對日一戰을 不辭한다 고함에 이르럿다 日本의 對中經濟國策實行도 이제 再檢討를 必要한時代에 이르렀음으로 政府는 近 ……支援을 不惜한다는 態度로 決定하얏다 一方에잇서서 成都事件을 中心으로한日中關係의 險惡北中에잇서서의 第二次肅正工作의推進 他方中央廣西의 運命的對立을 激化시기며 이에 介入코저하는 英米蘇各國勢力과 角逐이 各方面에 展開되여 多事多難의 秋를 마지하게되엿다 冀察政務委員會 經濟委員長으로 北上 就任케된 王克敏氏의手腕에 信賴하야北中에잇서서의 排日抗日空氣의 淸掃에關하야 深甚한 期待를 보이고잇스며 目的貫徹키 爲하야 二十九軍의 根本的整頓에 對하야 ……

(寫眞은 蔣介石氏)

成都事件에對한 川越氏에의訓令
內容이甚히强硬

【上海七日發同盟】川越大使에게對하야 有田外相으로부터 發한 訓令內容은 從來와다른 强硬한 意思表示로써 國民政府의 決意를 質問하는同時에 抗日態度是正을 眼目으로하야 新生事件때에 國民政府가 確約한 黨部及國民政府의 抗日態度是正이 今日 아직 少毫도 實行되지아니한 事實에 對하야 國府의責任을 追及하고 特別個個의 問題에는 不觸하며 大局的見地에서 抗日絶滅의 確固한 要求를하는 一方 事件解決의 慣例的 强硬措處 即 陳謝賠償, 責任者處罰及 將來의保障等中 特히 將來의保障에 關해서는 明確한言質을 取할려이다 그런데 右訓令은 政府의 根本的態度를 明白히하고 廣汎한 現地의 自由裁量을 남긴것으로 交涉에 잇서서의 川越大使의 手腕에 多大한 期待를 가지고잇다

三省出先首腦部會議

【上海七日發同盟】海陸外三省駐中首腦部會議는 昨日에 繼續하야 七日午前十一時半 大使館에서 開催하고 川越大使 若杉參事官 須磨南京總領事 喜多佐藤陸海軍武官이 出席하야 昨日의 協議를 基礎로 다시 國民政府와의 交涉에 當하고 具體的方針을 愼重協議한結果 川越大使는 陸海軍武官의 積極的支援下에 南京에 赴하야 事件의 根本解決을 行하려고 交涉에 當하기로되엿다

北海道地方行幸
今日正式御吩咐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옵서는 來月三日부터 六日까지 北海道石狩平野에서 近代兵器의 精銳를 擧하야 展開되는 陸軍特別大演習을 御統監하시기爲하야 來二十四日 御發輦, 親히 錦旗를 北海道十州의 地에 進게하시는데 陛下께옵서는 이와 前後하야 十五日間의 長期에亘하야 東으로는 根室로부터 西에는 旭川留萌에 이르기까지 全道三十一個所에 行幸하사 北地開拓의 實情及地方民情을 親히 御視察하옵신다는 聖旨를 七日 正式으로 御發表하셧다

聖旨를拜受하고 總督謹話

今回의 水害에 對한 優渥한聖旨를拜受하고 南總督은 傳達式後如左히 謹話하얏다 今年 朝鮮은 水稻耕作前後로부터 氣象狀態가 極히 不順하든차에 八月中 二回에 亘하야 中南朝鮮地方을 掩襲한 風水害는 全혀 近年稀有의 慘禍를 齎來하야 實로 憂慮하야 마지안는터이다 그런데 天皇陛下께옵서는 이報를 드르시압고 기피 御軫念하시사 特히 侍從牧野貞亮子爵을 御差遣, 親히 災害地의 實情을 視察시키기로 하시어 同侍從은 無事御到着하야 今日 只今 고마옵신 聖旨의 御傳達을 拜受하엿다 鴻大優渥한 이天恩에 奉對하야 참으로 恐懼感激不已하는바이다 이제 聖旨를 拜受한以上 當該地方官民에게 御傳하는同時에 官民一致 다시勇을 鼓하야 災害復舊는勿論 關係地方의 民力復興에 努力을傾注하고 最善을다하야 聖旨에 奉答하기를 期하는터이다 道內官民은 다함께 굿센 感銘으로서 復興事業에 協心戮力하기를 希望하는바이다

七日入京한牧野侍從

불룸首相의演說
不干涉案拋棄하면 歐洲危機는必然
共和國의國威를毁損치안코 國防安全確保에努力

【巴里六日發同盟】불룸首相은 六日午後六時半 社會黨세-느縣大會에出席하야 西班牙內亂을 繞한國際情勢에言及하고、不干涉協約案堅持의決意를 聲明하엿다 불룸首相은 또 不干涉提言한趣旨를 闡明하여日 西班牙內亂發生以來 國際情勢는 逐次惡化하야 佛國政府는 紛爭의國際化를 極力回避하려는見地에서 不干涉協約案을 各國政府에提言하엿다 그런데 同協約案成立까지 各國政府와의交涉은 意外로時間이걸려 그사이 一部政府는 叛軍에對하야 軍需品을 輸出提供하엿다 佛國國民의 그不正不平等에憤慨를 禁치못한것은 當然한일이다 그러나 不干涉協約案은 이미 成立되어 爾來各國政府는 잘誓約을遵守하야 協約違反의證據는 하나도업다 이미佛國政府는거듭 非公式으로 右不干涉案을 어대까지든지 嚴持할意圖를 嚴肅히聲明하엿다 다음 불룸首相은 不干涉協約放棄의 結果에 言及하야 勞働組合代表가 五日來訪하야 西班牙內亂에 對한 從來의 方針을變更하고 新政策을採用하도록 提言하엿다 그러나 한번佛國政府가 不干涉政策을 放棄한다면 歐洲政局의 危機를 誘致할것은 必然한것으로 情勢의變遷은 거이想像할수업다 모든協約存續은 北아프리카植民地와의 連絡을保障하는데 絕對로 必要한것은 말할것도업다 即 政府는 西班牙民衆을 完全히代表하야 佛蘭西政府와의 友好關係를 持續하는 合法的政府인것은勿論이다 그러나 問題는 最後通牒을 發하지안코 最後까지國際法을堅實히 尊重하야 갈터이다 或者는 佛國政府의 政策을 軟弱卑屈하다고 非難하나 하지마는 政府는 斷乎 佛蘭西共和國의國威를 毁損치안코 一切의 手段을 다하야 國防의安全確保에 努力하고잇다 그러나佛蘭西政府의國防은 依然 그相互援助條約과 軍備縮少에對하야 誤解를사거나 國際紛爭을誘致함은 斷乎排擊치안흐면 안된다 戰爭은 避키難하다는見解는 어대까지 拒否하야 最後까지 破局阻止에 邁進하겟다

佛波兩國間에借欵協定調印
總額二十二億五千萬프랑
全部軍近代化에使用

【巴里六日發同盟】波蘭의 獨裁官敎育總監 스미·그리히將軍은 過般來 巴里에 進出하야 佛蘭西軍의 狀況視察을兼하야 參謀總長 카므랑將軍달라디에國防相과 長時間에 亘하야 協議를 遂한後 六日午後 본네·랑비에에서 佛首相 불룸氏와 會見을遂한結果 佛、波兩國政府間에 現存한 同盟條約의 條項에關하야 借款協定을 締結하고 即時調印을 終了하엿다 協定要旨는 如左하다고보인다

一、佛蘭西政府는 右軍事借款協定에依하야 波蘭을 自己便에너허 外交包圍陣을 强化하야 나치스獨逸의 東漸을 抑壓할 意圖라

一、波蘭政府는 右借款에依하야 波蘭國軍의 近代化를 斷行하야 裝備改善을 圖하야 借款의三分二로써 軍用機及自動車를買入해서 國軍을機械化할것

一、軍需品은 모다 佛蘭西로부터 購入할것

一、佛國政府는 波蘭政府에對하야 今後五個年間에亘하야 總額二十二億五千萬프랑의 借款을 附與함

스미그리將軍은 右協定을 선물로 六日午後九時十五分 巴里出發 월소우에向하야 歸國의途에就하엿다

委員會를設置
根本對策再檢討
臨時災害對策調査委員會와는別個로
決定事項은即時實行

死傷과 億의被害를낸 稀有의 風水害에 刺戟되어 이對策의再檢討가 자조 論叫되게되엇는데 總督府에서는 慘禍가 意外로甚하엿든것에 鑑하야 當面의 應急措處가 一段落을 告함을기다려 根本的再檢討를 加하야 今後의 災害對策에 一新紀元을劃하기로되엇다 即 從來는 產業交通, 敎育等 一般文化施設이急을 要하엿기때문에 災害對策에對해서는 徹底하지못햇든 遺憾이 잇스므로 今後 이에對하야 十分 再檢討를 加하야 國家百年大計를 樹立하려는것으로 그結果는 자못注目되고잇는데 이에는 單히 風水害뿐아니라 旱害冷害對策도 아울러 硏究하기로 될 模樣이다 그런데 그機關에關해서는 現在로는 아직 具體化되지 안헛스나 널리 關係方面의 意見을 求하야 綜合的硏究를 進行하기 爲하야 過般設置된 臨時災害對策調査委員會와는 別個로 內務, 殖産, 鐵道, 遞信, 農林, 警務各局及 關係地方廳關係者로서 委員會를 組織하게될터인데 民間側의 意見希望도 聽取할 意向이므로 關係地方側으로부터 委員을 너케될것이다 그런데 右委員會에서決定한 事項은 可及的 最短期間內에 그豫算을 圖하야 實行에 옴길方針이므로 一部緊急을 要하는것은 明年度豫算에 追加計上하게될모양이어니와 此等根本的對策費를 合하면 明年度의災害復舊對策費는 적어도 一千萬圓은 突破할터로 災害費의 記錄을 깨트릴것이다

災害應急策에
各道責任支出을考究

今回의 風水害는 未曾有의 慘害를 極하야 被害額도 一億圓程度에 達할것으로보혀 各道에서는 各其應急資金을 支出하야 罹災民救護에 當하고잇는데 如斯한災害에 際하야各道에는 救護資金과 責任支出과가튼 制度를 가지지안헛기때문에 災害때마다 總督府에 申請하야 承認을 求할바게업시 應急의 境遇에 자못適性을 失하는中遺憾이잇스므로 內務局에서는 日本內地와가티 罹災救護基金制度를各道에 創設하야 이에 一定基金을 與하야 天災地變의 境遇에는道知事의 責任으로서 支出이可能하도록 目下硏究를 進行中인데 成案을 엇는대로 明年度追加豫算으로 要求할터이다

時事漫畫

佛國人民「이래도沈默이냐? 쏘지안흐면 지물테다」

豐台事件和平解決

【北平七日發同盟】六日夜 宋哲元氏派의 二十九軍首腦部會議에서 豐台事件解決對策을 協議하엿는데 席上에서 秦德純氏等의 穩和派의 意見을 宋哲元氏가支持하엿기때문에 馮治安氏等急進派는 마츰내 이에同意하야 二十九軍의 方針도 和平解決로決定하엿다 따라서 이數日來 緊迫한 情勢는 漸次 緩和되어兩三日中에 北中不安을 一掃할擧處가 講究되게되엇다

人事·集會

▲川崎延壽氏(專賣局副事務官) 新任人事次七日來社

夕刊後市況 七日

◆大阪 短期 (後引)◆
大新 六八五〇 (不變)
鍾新 一六五七〇 (一〇高)
日產 八一三〇 (二〇低)
東新 一二五八〇 (一〇低)
◆橫濱 生糸 後引◆
當限 六九六〇〇 先限七〇〇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六三三〇 先限 六〇二〇

三橋新警務局長 十日東京出發赴任

三橋新警務局長은 十日午前九時 東京驛出發 西下 伊勢神宮 畝傍 桃山各御陵에 參拜한後 一路直行하야 十三日 午後三時二十分 京城着列車로 單身赴任할豫定이라한다

人民戰線運動 絕對不許容方針
特高課長會議서決定

【東京同盟電話】七日의全國特高課長會議에서 西班牙內亂의 波及과 이取締가 問題가 되엇는데 全國各特高課長의 거의全員一致된 意見은 國情에 비추어 人民戰線運動은 絕對許容할수업고 또 目下 西班牙의 코민테른의 策動으로보아 左右兩翼의思想運動을 激化케할 憂慮가잇스므로 斷乎 取締할것이라는結論에 對하야 內務省으로서는 今後人民戰線運動에 對해서는 斷乎彈壓方針으로서 나아가기로 決定하엿스나 또農民運動 取締에 對해서는 最近 土地問題에 基因한 小作爭議激增에 鑑하야 査察內偵을嚴重히 하고 豫防警察의 徹底를期하기로되엇다

增稅斷行具體化
財政部會銳意硏究

【東京電話同盟】增稅問題는 今後 電力統制問題와 아울러 財政上及 政治上重大問題化할 情勢에잇는데民政黨으로서는 此際增稅斷行에 及할 影響이 相當히 重大하므로 不得已하다는 根本方針은 一致되어잇스므로 이具體化를 圖하기爲하야 勝正憲氏를 部長으로한 財政部會에서 銳意硏究를 거듭하고잇다 그런데 一方 政府의 增稅案은 相當히 彪大도 되는 廣範에 亘한 模樣이라고 傳하며 이에서는 各方面이 深甚한 注意로서 大藏省案의 具體化를 기다려 境遇에 依해서는 財政部會와 別個로 特別委員會를 設하야 愼重히 調査檢討해서 黨의態度를 決定할 意向이다

全國特高 外事課長會議

【東京電話同盟】全國特高, 外事課長會議第一日은 七日午前九時부터 內相官邸에서 開會, 本省側으로 萱場警保局長, 宮野保安課長, 橋本警保, 淸水防犯, 內務調査各課長 地方側으로 警視總監을 始하야 一道三府四十三縣의 特高課長外事課長外 皇宮警察, 司法省, 大審院, 憲兵隊, 憲兵司令部, 朝鮮, 臺灣, 樺太各代表等六十餘名出席 警保局長의 訓示로 이어 會議가열렷는데 全國治安의 實狀은 依然히 平穩하나 그底流에 잇서서는 幾多의 憂慮할事象이 伏在하야 治安의前途는 아즉樂觀을 不許한다는 前提下에

一、共產主義運動의 組織結成運動의動向
一、叛亂事件後의 右翼運動의動向
一、農民運動의動向
一、內外不逞朝鮮人의動靜
一、類似宗敎의活動
一、外國諜報機關의活動
一、不敬文書取締

等 最近의 非合法運動의 動向을 詳細히 報告하고 內外情勢의 重大性을 强調하고 社會各般의 情勢에 對하야 査察內容을 嚴格히하고 不法不當한 行爲에 對하야는 斷乎取締를 加하야 治安確保의 萬全을 期하도록 訓示를 한다음 議題에 드러가 左의 秘密諮問及 同指示事項에 關한 質疑應答을 거듭하고 正午休憩 內相官邸의 午餐會에 臨하엿다가 午後一時半부터 秘密指示를 하엿다

▲諮問事項
一、邪敎取締의方策如何

▲指示事項
一、不穩行動(右翼)取締에關한件
一、共產主義運動의査察取締의件
一、農民組合運動의査察取締의件
一、邪敎取締의件
一、海外로부터의共產主義赤化宣傳取締에關한件
一、外國諜報機關의取締에關한件
一、容疑留學生取締에關한件

早稻田大學 校外生募集

左記 各講義錄들은 秋季新學年、申込受付開始
年齡 學歷에制限업다
讀者는모다 本大學의 校外生으로서 待遇하고 左와如한各種의 特典이잇다

特典

一、校外生은모다指定한帽章、洋服댄추、襟章等의着用을許한다
一、修了後는特別考査를經由하야本大學專門部에入學할수가잇다
一、學科의質問身邊相議에應하고、各種檢定試驗에對한受驗指導等을行한다
一、各地各縣에設立되여잇는早稻田同攻會의會員이될수가잇다
一、本大學의巡廻講演校外生大會等에出席할수가잇다

詳細한것은內容見本에依하야아시라

中等學校程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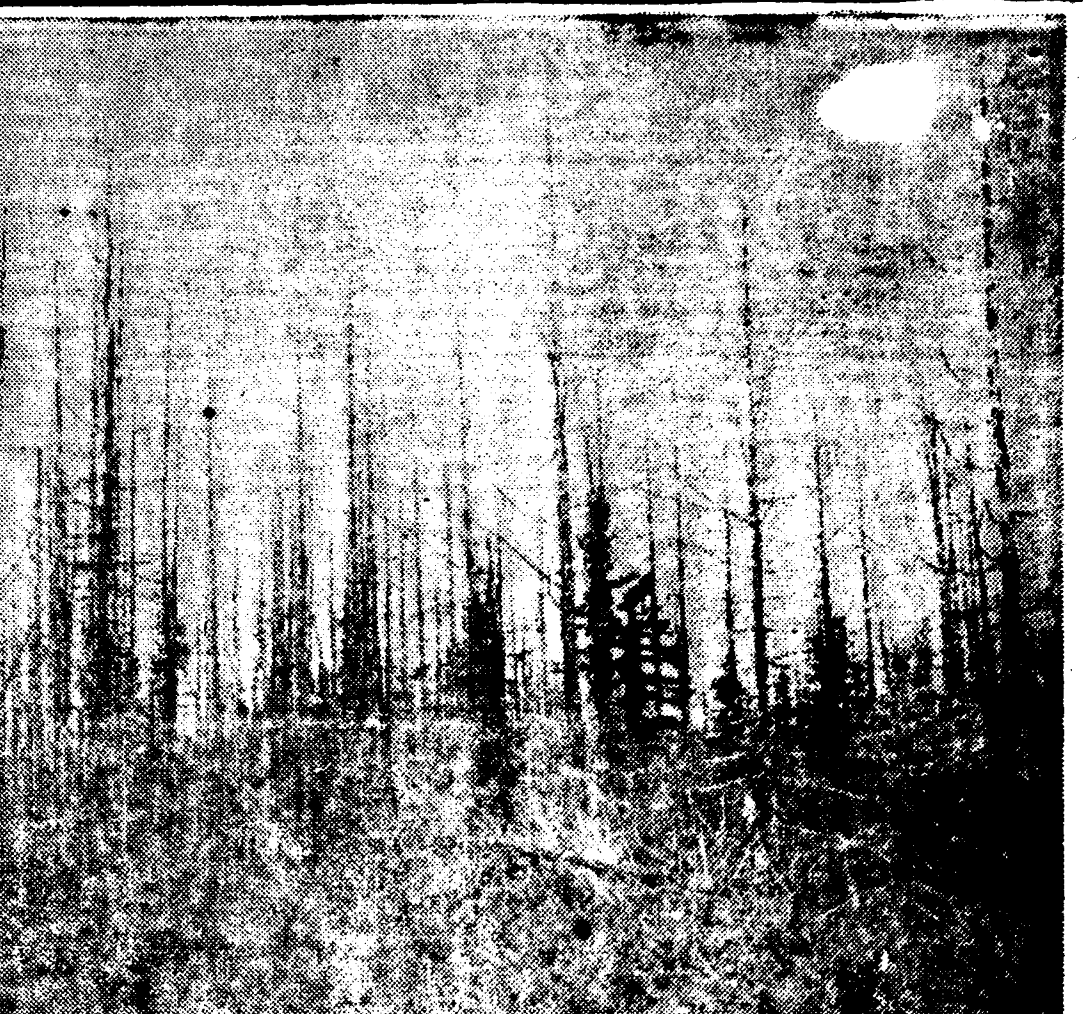
中學講義	商業講義	高等女學講義	工學豫備講義
前後期各一ヶ年 月一圓	一ヶ年 月一圓	一ヶ年 月一圓	一ヶ年 月一圓

專門學校程度

政治經濟講義	法律講義	文學講義	建築講義	電氣工學講義
一ヶ年半 月一圓二十錢	一ヶ年半 月一圓二十錢	一ヶ年半 月一圓二十錢	一ヶ年半 月一圓三十錢	一ヶ年半 月一圓三十錢

內容見本
見本請求하실때는 받고싶은 希望하시는 講義錄을쓰십시요

申込所
東京·牛込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一二三
電話牛込三四五



靈獄錦衣에 불구녕 앗가워라 十里燒林

작고 여윗다고 팔세를 마러라

⑯ 이길에 마침인 朝鮮말

李相昊記

산했드면 청태조(淸太祖)가 될 뻔한 한명회의 애석한꿈을 내 일삼아 머리속에 그려가면서 떠슈유를고나온다。이틀동안 강행군(强行軍)을한 내다리는 무릅의굽신을 자유로못할만큼 「에너ー지」를 허러업샌모양이다。내올의천지(天池)에 올라갈 차림를 생각하니 이우에더 다리를혹사할수업섯다。가엽게도나는 오늘부터 말잔등의 신세를지게되엿다。

키가적고 몸이여위고 풍채가 초라한조선말을 누구나 업수히녀엿고 갓잔케보앗지。그러나 요놈이 백두산행차에는 팔세는고사하고 다시업는 보물이될줄이야 이번거럼아니고 어찌알앗슬랴고。첫재몸이작으니 상모종을 부어노흔듯한 삼림사이를 사람빠저나갈 틈만 버려젓스면 서슴잔코 빠저나갈수잇고 둘재 키가작으니 큰말을타면 거미줄가치얽킨나무가지에 목이날려갈판이지만 그대로 머리를 숙이고 빠저나갈수잇고 셋재 배가적고식성이 까다롭지안흣지라 발만멈추면 무지장으로나물이 량식이되고 별미삼아 마부가준비한 콩과귀밀도 열흘식량이 한자루로족하다。넷재로 힘은큰말못 못지안흐니 짐이고 사람이고 사양말고 시려달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경비대에서타고온 큰말은 이런밀림속을 돌코다니기는 여간 거치정스럽지를안허 목이걸린다 모자가버서진다 엽길로도라간다 희비극이 한두번아니한편으로 입이포스려워 량식은전부준비를해오곤하야 경마노릇판소용은되지못하도 백두산행차에는 아주 락제다。

내가탄말도 방울소리에 장단을마추어 한눈한번팔사이업시 물명업는 기계그대로 공손스럽게 걸어준다。배에닷는 나무등치도 용하게넘어선다。발목을못는 진펄속도 서슴잔코 건느너간다。

○……○

얼마안가서 불에탄 소림(燒林)이보인다。언제불이부터 언제불이꺼저 어데까지 타번저나갓는지 알수업는 삼림의폐허(廢墟)다。옷이고 살이고 다버서버리고 벌거버슨알몸뚱이로 빼빼만 앙상하게 못도안보이게 드러선 마른수풀은 바로 백만대병의 기치창검 도갓고 번창한포구에 돌린 돗대무뎌이도 가태도보인다。이나마 색다른 풍경이라 가도 가도 초록빗츠로 피곤해진 눈에 얼마큼 파적을 식혀준다。원래 삼림이 엄청난터이라 그엄청난 삼림에 비하면 손바닥한개에 지나지못하겟지마는 그래도 끔직이 크고넓다。저만한 어림이 한목으로 불이 부터 몽몽한 연기가 천지를 뒤덥고 열염한 불길이 하늘을 찌르든 장관을 생각하면 지금 이자리에서라도 한번 질려보앗스면 하는 부질업는 생각이 돈다。에랑 이무슨 괘적은 생각일고。아모리 혼하고 아모리 넉넉하다드라도 이상풍의 풍한폭이 나무한주는 령산을 뫼서 직히는 시종들。들한개 물한줄기라도 서의(瑞獻)을 꾸며보레는 노리개거든 어찌 그서슬이라도 거드림것이며 그자리에라도 닷칠라고。그적게 흥남동에서 북선제지(北鮮製紙)의 기부로 짓는다는 주재소를 보고 전평 천리의 대부동 소부동도 목숨이 얼마남지안핫구나하고 한숨을 지엇고 이틀동안 로영터에서 회루불가웃나무로 사정업시 버혀재킨것도 못내황송스럽거든 이무슨 망여된 생각일고하고 뒤질아 넘우첫다。

○……○

그러타。세상에서 제로라고하는사람의 자랑은 밧지르한옷우를두를한비위 빨죽한몽오리 떠러지는 물빗기 한것 이런것을 가지고 명승이니 절경이니 떠들고잇지마는 백두산에 이르러서는 이모든 감염피작란을 버리고 하늘도땅도 보이지안는숩속으로 사흘동안마참고 뚤고올라오느라。나흘만에는 너히들이 기두르든 신비스럽고 장엄한그얼굴을 보여주마。

이것이 백두산이다。천지(天池)가 그머리면 전평(…)밀은그 그몸뚱이 이름더흔 푸른숩은그 금의(錦衣)가 될바이니 그거룩하고 조촐한 옷자락에 잘못숲러진 불구멍이 어찌황송치 안흔것이며 그옷가장자리를 좀먹는거조가 어찌 송구치안흘것이냐。

(사진은 불탄숩)

廢墟에서 새建設

災地에 復興氣分

눈물가운데서 생도를찻는이소래

更生第一步의 晉州

【晉州】자연의 폭위!지구상(地球上)흙에없던 무서운폭우도 지나고보면 일장의악몽(惡夢)재민들의 얼굴에는 처참한가운데도 오히려희망의비치 나타나새로운건설!부흥(復興)에로 용감하게나아가잇다。재지진주의 참담한피해상황과 참혹한 리재민의정경은 루차긔보한바와 갓거니와 지금은천시가 아울러 못(釘)박는맛치소리와 톱(鉅)질하는소리로 요란하다사람들은엄마나이소리를 힘밋고、그러고바갑게듯고잇겟는가 목공 토공들을론 일반로동자에도 크게부족을 늣긴다。방한간수리하는데 종래에는 이원하든것이 지금은 삼사원을주어도사람이업다。목공과 토공은 돈을만히주고 서로빼아서가는형편이다 그리하야 돈벌리조타고 촌에서도 수백명의로동자가들어와잇다고한다 평소남의 세집으로돌아다니며 국빈이지내든층에서는금번에비록 얼마간의수해를 보앗다하드래도 처자는리재민수용소에맷기고 날품은로동을하야 하로며원식벌리하게되다 눈물나는중에도 부흥의깃붐은잇다 그러나 이모든것이다 진복흥진주를 상징하는것이다 영주에서 가장피해가 우심한 영정(榮町)일대의 상가(商街)에는 방울새워가며 못박는 맛치소리가 요란히들린다 그공포심놉자아내든 무서운폭우도 지금엔 한조각 악착한꿈으로변하고 재민들의 머리에는 다만「부흥」의 두글자가잇슬뿐이다

貧困한行商 七首自殺未遂

칠일새벽세시사십분쯤되여 남대문통(南大門通)남대문시장 (南大門市場)에서 낫으로 목을찌르고 죽으려는 사나히가잇는것을 지나가든 사람이발견하고 곳부근 병원에 입원치료중이나 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그의성명은 신국종(申國宗)([illegible])으로 일정한주소가업시 장울돌아단이면서 근근히 사려가든중 근일에와서는 장사가 전연 되지안허서 비관하고잇든차 사오일전부터 정신에 다소이상이잇서서 근방사람들도 주의하고잇든중 전긔와가튼 비극을일으켯다한다

純情의爆發·至誠의結晶

눈물에包裝된災地로의金品

이번온다른土耳其人 洋服三十六着을

일전 부내황금정(黃金町)에잇는 토이기인(土耳其人)「까·비엘센」씨가 삼랑진(三浪津)부근에서리재민들의 비참한정경을보고 동정하는남어지 양복마흔여덟벌을 본사로 긔탁하여와서 일반에게 큰충동을 준긔억이 아직도새로운 칠일오후 또다시 전긔「까·비엘센」씨의 서랑으로 본정(本町)사정목에사는 토이기사람「하제아프메토프」씨가 양복설흔여섯벌을 본사에가지고와서 삼남지방수해리재민에게 전하여달라고하엿다

阪神地方同胞들이 故土에보내는義金

▲본보소정리(小井里)분국에서도 수해구제금품을 모으기에활동하고잇는중인데 사일에는 소정리 우편소장 최우식(崔宇植)씨가 현금십원을 의연하엿다

▲경도(京都)립명관상업학교에 류학하는 조선학생 삼십여명은 멀리타향에서 수재의 비참한 소식을드고 넉넉지못한 학자가운데서 약간식 성의것 의연하야 합계 금오원을 칠일에 본사로 부쳐보내엿다

▲신의주공립고등보통학교(新義州高普校)의 생도와 직원들은 성심으로 더러내여 합계구십오원칠십오전의 의연금을 모집하야 오학년생 박동식(朴銅植)군등 여섯명이 륙일에 본사신의주지국으로 가저왓다

▲신호시수마구송야통(神戶市須磨區松野通)일정목에잇는 애광신우회(愛光信友會)에서는 수재의연금 팔원사십전을 모아서본사신호지국에 위탁하야 칠일에 본사에 부처왓다

그러고 또 신호재류조선동포들은 수해구제회를 조직하고 방금활동중인데 신호시 림전구삼번정(林田區三番町)에 거주하는 림응천(林應千)리승엽(李承燁)량씨는 솔선하야 동정금을 모집하야 합계 이십칠원팔십삼전을 본사신호지국을 거처서 칠일에 본사로 부처왓다

金泰熙氏百圓

칠일 시내종로삼정목오십오번지 수남상회(壽南商會)사장 김태희(金泰熙)씨는 수해구제금으로 백원을 본사에 긔탁하여 왓스니 감사한일이다

中央禮拜堂美擧

구제의손은 각방면에서 뻐치고잇다――칠일 시내인사정 (仁寺町) 중앙례배당(中央禮拜堂)에서는 신자들에게서 모흔옷백사십가지와 현금이십이원이십이전을 본사에 긔탁하여왓다

祖孫間에손목잡고 救濟金品두목出捐

칠일 시내장사정(長沙町)이백삼번지의일호 최효선(崔孝善)(女)씨는 그의손자인 교동공립보통학교일학년생 방승화(方承鶴)군의 손목을 이끌고 본사를 차저와 현금이십원을 수해구제금으로긔탁하엿스며 방군은 벙어리에모아두엇든 팔원사십전을 내고도라갓다

罹災民이災民救濟

시내마장정(馬場町)정회총대 윤태병(尹泰炳)씨는 저번수해에가장습을 천여원의 손해를당하얏슴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과강원도지방의 리재동포의 참상을생각다못해 칠일 본사를래방하고 금오원을 긔탁하엿는데 그적성에는 감격할수밧게업섯다

가마니색기판돈을

칠일 경긔도개풍군림한면월암리(開豐郡嶺漢面月岩里) 갈산청년부원(葛山靑年部員)일동은 일즉히 보지못한 저번풍수해구제의 적성으로 부원일동이 농사여가를타서 짚씸이만든 가마스와색기를판돈 이원오십전을 본사로 긔탁하야왓스니 그성심을 무한 감축하는바이다

(사진은 내수정구제품‖上‖동교북정회‖中右‖동화계사‖中左‖동헌저정회‖下)

歐洲의樂都에서 방아타령放送

부다페쓰트씸포니團에서 安益泰氏가指揮

미국에 류학중이든 구라파로 연주려행중인 우리의음악가 체리스트로 안익태(安益泰)씨는 그동안 독일을거처오스트리아의회서울「윈나」에 잇서서 그로 음악가를 시찰하고 다시「항가리아」로 건너가게되엿는데 항가리에서는 특히 그곳서울「부다페스트」방송국의 초청을바더 유명한「부다페스트·씸포니오케스트라」를 지휘하야 구월십일밤구시반부터 약한시간동안 방송을 하게되엿다、이방송에는 서양곡조를 주로연주하는중 특히 양곡으로 씨가 편곡한 조선민요「방아타령」을 연주되여 널리 구라파에 소개케되엿슴은 크게 반가운일이다 씨는 체리스트로 비범한 긔량을보이고잇슨외에 미국서「필라델피아」판 현악단지휘자「스토코프스키」씨미테서 지휘를 연구하야 지휘자로서도 섬까를 노피고 잇는터이다 그러고 씨는 시월상순까지 불란서와 영국으로 연주려행을 꼿내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리라한다

(사진은 安益泰氏)

거리에서매저진 사랑은밋지마라!

羊의껍질을뒤집어쓴사나이에게속은

純情處女의怨恨에매친艶書

순진한 처녀여 거리에서 매저진 사랑을 밋지를마라 양의껍질을쓴 늑대가튼 사나히가 거리에 가득차서잇다 칠일오후서 사법계 김동긔(金東麒)형사에게 뜻밧게 원한에가득찬 더운이업는 연애편지 한장이 들어왓슴 이상히생각하고 그밧신인을차저 호출하여본즉 그는 시내 운니정(雲泥町)사십번지 고욱희(高玉姬)([illegible]) ─假名─라는 소녀이엇스며 조사한결과 드듸여이 김동긔는 연애편지뒤에숨은 복잡한 사실이 판명되게되엿다 이제 그이야기를 듯건대 전긔소녀는 지난봄월경에 시내 우미식당(優美食堂)에서 녀급노릇을하고잇든중 경성법학전문학교(法專)이년생이라는 학생이 자조드나들면서 그소녀의 사랑을 구함으로 순진한소녀는 이래 약한달동안 꿈과가튼 첫사랑을 속삭이게되엿다 이리하야 얼마전에 우미식당을 그만두고 고향에돌아갓다 수일전에 상경하야 그전잇던집을 들아와본즉 그집에 종로서형사대가 다녀가면서 그전문학생이 절도전과자라는말을 하더라는것을알자 어린가슴에 크게놀래여 곳 그사나히가 그전에 가르켜주던 그이름대로 종로서 김동긔라고하야 기나긴 원망과애소의편지를 써던것인데 그 가장한전문학생인즉 김정국(金正國)([illegible])이라는 소매치기 전과자로서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중 신병으로 일시형의집행정지가 되여나와잇든중 그전취조를받던 전긔종로서 김동긔형사의이름을 사칭하고 그와가티 소녀의사랑을 빼앗고 범행교복을 입고다니며 범죄를 거듭하다가 또다시 수일전에 종로서로 복잡혀 온것이엇다

地主小作人五百餘名 郡道廳에陳情行

密陽郡同水利管內서

【密陽支局特電】밀양군초동수리조합(初同水組)은 락동강(洛東江)물이 무섭게 붓는통에 이천여명주민의 필사적 방비도보람이 업시 지난달이십팔일 아츰에 그뚝이 터저나가서 논사백이십정보가 몽땅 버리게되엿다할은 이미 보도된바어니와 그수리조합은 지난 소화팔、구두해동안 수해때에도 뚝이 터저나가서 농작물이 전멸되엿이한번이 아니 엿기때문에 주민들은 두서너차례나 락동강아페으는 뚝의 보강(補强)공사를 해달라고 탄원해왓스나 그럴적마다 당국의 용인을 밧지못햇다。

그래서 올에도 그액운을 면하지못하게되엿것이다。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사변동앗은 변한줄도 거두어 먹지못하는 상태인데이까닭에 그조합에 가입된 지난들은 물론 수천형의 소작인들은 그야말로 이제는 막다른골목에 다다르게되여 그들은 지난 여섀날 지주와 소작인 일동이 두어날 먹을 주먹밥을맨드러 허리에차고 경남도청과밋 밀양군청으로 자긔네들의 말할수업는 참경을 진정하려고 모혀드럿다。

잠간동안에 오백여명이나 모히게되자 이급보를바든 밀양서에서는 다수한 경관을 현장에 보내여 겨우 물러드라오는 그들을 막엇스나 그들은곳까지지진정에대한복적을달코저하는중이다

白頭山映畫講演

九月八日招待區域

본사주최의 백두산탐험영화와보고강연대회 제일일인 팔일밤에 초대할 독자의 구역은 아래의 갈동리인데 밤여덟시반부터본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第八日 崇仁町 新設町 安岩町 祭基町 新堂町 淸凉町 回基町 徽慶町 新堂町 上往十町 下往十町 杏堂町 馬場町 永登浦一圓

清津蘇領館問題解決

【咸興駐在莫快一發】「싸베에트」련방 경성주재총령사 (京城駐在總領事)「레오니드·아이신」씨는자난삼일 아침여덟시사분 청진착렬차로 단신출으에 청진경거장에 나리게되여 당지국제호텔에 잠간 쉬엿다가 청진경찰서에전중서장(田中署長)을 방문하야모종협의를 거듭하고 세무서(稅務署)와 부청(府廳)당국에서는 동씨에게면회를청하야모종협의를하엿다는바 듯는바에의하면 협의내용은 지금으로부터 십년전에 페관하엿든 『싸베트』련방 청진령사관건물을 그후 중국측에서 사용하야오다가 지난 칠월십륙일에 아러난 세종 중국밀정사건(中國密偵事件)을 이르켜 수습령사(隨習領事) 손병권 (孫秉乾)을 중심으로 일시 세상을떠들석하든 사건의 봉거지로 사용이잇슨후 청진서에서 동관을 감시하고 오날까지 나오든것이라는데 금번 『아이신』씨는 전긔폐관에대한 선후책을 강구하려 나려온것이라는바 지금까지 체람상태(滯納狀態)에 잇든 동관의 납세관계 일체를 납입하기로하고 세무법규(稅務法規)에의하야 오개년간의 지세(地稅) 가옥세(家屋稅) 급가부가세(附加稅)를 합하야 약사천원을 경성가서 위송하기로 약조하엿슴으로 십년간이나 애매한존재로 잇든 동관은이에「쌰베에드」련방의손에 정식으로 인도되야 복구되게되엿다

이리하야 동총령사는 청진서에적당한 감시인(監視人)을 구하야 동관의감시를 의탁하얏다한다

不良染料로서 農村欺瞞行脚

警察에發覺、營業廢止

나쁜물감(染料)을 농촌사람에게 속여 팔아먹다가 영업정지를당하엿다 시내아현정(阿峴町)팔십오번지의 이백륙십오호 선만상공사(鮮滿商工社)리순채(李純釆)라는 이는 작년팔월부터 시내 남대문통 사정목 물감장사 복수양행(福壽洋行)에서 물감을만히 사가지고가서 제마음대로조곰식 봉지를 맨드러서 검정(檢定) 밧은 물감가리 하여가지고 「선표염료」(鮮標染料)라고 선전하야 전조선각지에 판매하고잇섯는데 그것은「비색농도」(比色濃度)가 륙십퍼센트 내지구십퍼센트밧게 안되는 불합격품이엿습이다 요지음에관할 경찰서에 발각되여 수일전에 시말서(始末書)를쓰고 그영업을 폐지하기로 되엿다한다 새의장려하는 긔회를타서 부정한 물감장사가 각금생기므로 경기도경찰부 보안과에서는 이로부터 띠철처히취체할터이라한다

第一二次風被害集計【七日午後二時現在】

	人命 死者	人命 傷者	人命 行方不明	家屋被害 倒潰	家屋被害 流失	家屋被害 浸水	船舶被害 流失	船舶被害 浸水
京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忠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忠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全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黃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平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江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咸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咸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小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第一次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

▲第一、二次累計 ▲人命總死傷六、六七二 ▲家屋總被害一八〇、二九一 ▲船舶被害流失二、九五三 ▲同沈沒三、八五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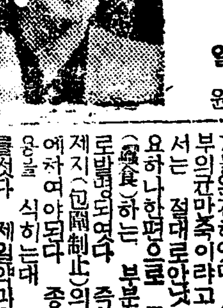
●돈?병?약?

병을모르는것도아니오 돈이업는것도아니다 조혼약을 구하여야 한다 신용잇고 고명한 신성당은 약이 영하다고 이름잇스니 조흔약을못어며 고통하는분은 경성서대문 신성당으로 문의하시오!

신성당철대명약

체증 속병 과앤 — 겡오ー — 경증용 일원 중증용 이원 완고증용 삼원
냉병 대하 집증 — 구로벨 — 급성 만성 완고 약
매독 — 푸로타ー — 경증용 중증용 완고증용 삼오구원
부족 늑막 페병 — 나오빼ー — 염증 병증 초기 — 삼오칠원
보음보양 머리 — 가이자ー — 경증용 중증용 — 오십원 / 오십이원
기침 해소 천식 담에 — 에치빼ー — 경증용 중증용 완고증용 — 일이삼원
치질약 — 엥구루 — 경증용 중증용 — 일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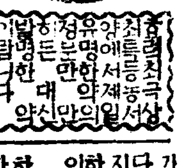
◎어떠케하면 좀더잘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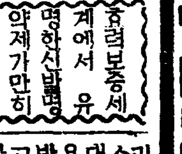
우리가 이세상에 생겨나서인생고해(苦海)라고 고생만하고산다 쌍가마(雙轎子)안에도 서름이잇다고 행복스러운중에도 한편으로는 다소간불행이잇다 돈이업서 하고싶은일을못하며 돈은 만어도 병이잇는지 병이업서도 가정이불화하다든지 가족이 만흐면서도 번가러가면서 병을알는다든지 일일히들어서 말할수업스나 제일고통스러운것은 몸에병이잇는것이다 신외무물이라 몸에 병이잇고는 영웅열사도못견대여서 죽는것이오 아모리돈이만허도숨대업고 지위(地位)가 놉다해도 다ー소용이업다 그야말로 손톱미테비접만들어도 불편하고 거북한것이다 티끌나블에무서운큰병이잇다면 맛장에죽을것갓다 감기만들어 머리만좀 아퍼도 견듸지못한다 의학(醫學)상으로 보면 무슨병이든지 대소를물론하고 다죽는병이라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줄은 모르고의학과 위생(醫學과衛生)의지식이 업기때문에 항상 병을알고잘고치지못하고 죽는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잘살고행복스러운생활을 할나면제일병에 안걸녀야하겟고 만일병에걸녀도 그병이 점점중하야저서 죽게까지 이르지안케 곳제일신용잇고 신효한 약을구하여서써야하겟다 그러면 어느약이제일조흐냐 삼척동자라도 다ー아는 서울신성당약이 무슨병에든지 제일 좃타한다 이것은 입발닌 사람이면 다ー말하거니와 뎌욱 가언론기관 각신문잡지사가證明한다 날마다 나타나는 광고를 보드라도 이것이확실히증명하는것이다 호미로막을것을 등한히하면 가래로도 못막게되니 이들을 보시면에만흔신성당약을 꼿쓰시오 행복과광명은서울신성당으로부터! 신성당 철대명약외에 무슨약이든지업는것이 업사오니 다소를물론하고 제일먼저 시험하야보시오

서대문밧 제일큰 신성당약방으로 주문하십시오 진체주문은 경성四九五〇번입니다 주문하시는대로 당일로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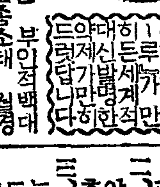
보음보양 젊어지는약 가이자ー(KAIZER) 가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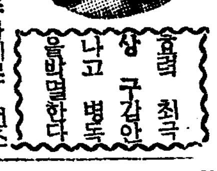
폐병 부족증 늑막염에는 나오빼ー(NAOPERI) 가제일



림질 대하증 냉병에는 구로벨(KUROBER) 이제일



매독엔 푸로타ー(PROTERI) 가제일



發賣元 京城府西大門電車停留場前五 (제일큰매약상점) 神崎神星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社會事業協會收合 水害義捐金

水害救濟金品募集

今番 江原、忠北、全北、慶尙南北等 五道의 大水害에 對하야 今十八日 學務、警務兩當局의 主催下에 在京諸日刊新聞社代表가 集合하야 그救濟策을 協議한結果 義捐金募集主體는 財團法人朝鮮社會事業協會로 하나 義捐物品의 募集主體及 義捐金品의 接受는 各新聞社에서 하기로되엇사오니 讀者諸氏의 諒解를 바라오며 兼하야 同日決議要項은 如左합니다.

決議要項

一、募集主體 財團法人朝鮮社會事業協會

二、後援 朝鮮中央日報社、東亞日報社、朝鮮日報社、朝鮮日日新聞社、朝鮮新聞社、每日申報社、京城日報社、各支部에서 依賴하는 地方新聞社、日本赤十字社朝鮮本部、愛國婦人會朝鮮本部

三、募集期間 自昭和十一年八月十八日 至昭和十一年九月三十日

四、義捐金의接受 社會事業協會各道支部、全朝鮮各道府、郡、島、邑、面、主催團體、後援新聞社及團體

朝鮮日報社

▲京城府三淸町

三淸町會 五〇〇▲張炳鋼 三〇〇
朝鮮美術品製作所鑄金工人員一同 一〇〇
南善熙 一〇〇▲李泰榮 一〇〇
金宗根 一〇〇▲李率載 一〇〇
林在茂 一〇〇▲鄭熙燦 一〇〇
姜羲東 一〇〇▲淸藤長太郞 一〇〇
三覺寺 一〇〇▲鄭然光 一〇〇
千田義光 一〇〇▲上野九郞 一〇〇
金道贊 一〇〇▲金相範 一〇〇
朴昌善 五〇▲梁昌鉉 五〇
朴判祚 五〇▲李澤 五〇
全興祚 五〇▲崔炳明 五〇
金鍾萬 五〇▲孫俊喆 五〇
金春鴻 五〇▲柳鳳秀 五〇
永野義治 五〇▲曹秉昌 四〇
李景夏 三〇▲金敬植 三〇
松尾兵作 三〇▲朴潤玉 三〇

▲朝鮮新聞社扱

十圓 京新報含舊 金永五
三十圓 京城府桂洞町 鄭學洙
二十圓 同齋洞町 ……
所得者一同

▲京畿道支部扱

十圓 京城府西四軒町高野山別院婦人會
千圓 京城府丁子屋……會員一同

▲京城日報社扱

千五百圓 丁子屋株式會社社長小林源六
千圓 同株式會社丁子屋
百圓 京城齒科醫學專門學校職員一同
二百圓 京城ロータリ俱樂部會計伊森明治
一百九十五圓五十錢 京城日報社 每日申報社及セウルプレス社社員一同
五百圓 京城日報社及每日申報社社會奉仕團
五圓 十里院驛出張所 佐藤隆藏

▲朝鮮日日新報扱

五百圓 京城府岡崎町七五戶島崎友次郞

▲延岡市扱

六十三圓五十錢 宮崎縣延岡市 西臼杵朝鮮人一同
內譯 一圓朴昌現 五十錢 李鼎弘 文敬寶 三十錢 崔根台 姜大鳩 宋鳳述 姜時熙 徐潤萬 徐相萬 權善運 崔振壽 金鼎濟 李茂性 李廷和 二十錢金琫濟 金周洪 徐且萬 十五錢 朴順善 十錢 朴文玉 金三生 金宗萬

十圓 大阪市外阪急線服部伊賀彥造
萬圓 兵庫縣武庫郡鳴尾村八ツ松 吉田石造
千圓 大阪、東京朝日新聞社
五十圓 東京朝日新聞社內 震災共同基金會

▲九月四日現在累計
二萬四千七百七十七圓六十一錢

運動競技

大阪에遠征한 任、金兩君落選

【大阪】第六回 全日本自轉車選手權大會第二日은 六日午前九時부터 甲子園南運動場에서 擧行한바 이에出場한 朝鮮代表 金容七君은 千米第一豫選에、任基德君은 五千米第一豫選에 各各入選하엿다가 準決勝戰에 드러가 力戰不及하야모다落選되엿다

【千米第一豫選】E組 1高橋(兵庫) 一分二八秒三 2金容七(朝鮮) 3吉崎(奈良)

【五千米第一豫選】E組 1折川(埼玉) 八分二一秒二 2任基德 3齋田(富山)

殖銀4 平實2

京日主催의 野球爭霸戰第二日平壤實業對殖銀의 第二回戰은 七日午後三時五十分부터 京城球場에서 平實先攻으로 開始한바結局四A對二로 殖銀이 이겨서準決勝에 드러갓다

◇投捕…(殖銀)吉本、李榮敏、佐藤 (平實)朴賢明、松本

平實	0	2	0	0	0	0	0	0	0	
殖銀	0	0	0	0	0	0	0	0	4A	4A—2

兼二浦7 釜山0

京日主催 野球爭霸戰第二日 釜山鐵道對兼二浦日鐵戰은 七日午後一時十八分부터 兼二浦先攻으로開始한바 結局七對零으로兼二浦大勝하엿다 閉戰二時五十七分

◇投捕…(兼二浦)菊池、上沼 (釜山鐵)佐田、森川

釜山	0	0	0	0	0	0	0	0	0	
兼二浦	0	2	1	0	0	0	2	0	2	7—0

◇今日의運動◇

▲野球…京日主催野球爭霸戰第三日(準準決勝戰)全仁川對淸津鐵道(午後一時)高麗俱樂部對京城府廳(午後四時)以上京城球場

頭痛이잘낫는名藥

有名한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奨

ノーシン 노-신

●머리가 갈러지는것가티 몹시 아플때!!
●바눌로 쑤시는것가티 끔치가 아플때!!
그리고 머리가 아프지안트래도
眠이 不足하거나 過度한讀書로睡
술을過飮하고 餘毒으로 氣分이조
치못할때나

明快해집니다 이러케기묘하게 잘듯는것이 노-신의 가장 자랑할만한 特徵입니다 平時에 服用하신대도 決코 害롭지는안사오니 安心하옵시고잡수시요 더욱 家庭常備藥品으로 언제나떨어치지못할뿐아니라 이러한 良藥은 아못조록 우리同胞에게 만히宣傳하야서 頭痛으로 苦生하시는분이계시거든 꼭이 노-신을服用하도록가르처줍시다

노-신은 어느곳을勿論하고 各處藥店에잇습니다 요사이노-신과 비슷한 藥品이만히나와사오니 잘못하면속히기쉽습니다

사실때 商標帽子印잇는것을 잘注意하십시요

藥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廿八包入 一圓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郞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三番

矢野

矢野テント商會 大阪西區日吉橋北詰 電話新町三六一・四三六五 東京事務所前橋

本社 京城販賣所 電本(2)一五九七番

어린애기의安全과幸福을保證하는上揭商標에注意하십시오、수리표우유는育兒用으로安心할수잇는唯一한煉乳입니다

煉乳之元祖

ワシミルク
수리표우유

연지 白粉이업서도 아름다운毛髮어야말로 女性이가저야할 훌늉한 魅力입니다

金鶴香油

株式會社野村商店

優美館 貫鐵町 電光三九五

伊之吉時雨笠 阿部九洲男 主演 大每特輯全發聲 國際ニュース

九月七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三大巨篇特別提供週間 每日晝夜二回公演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 夜間八時始映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均一

RKO社超特作品全發聲日本版 監督…허렐포메라-氏

悲戀名篇 마음의傷處 가사린헤뿌반孃 샬루보아이에氏 代演

梗概 이것은도헤뿌반의가슴의心境이다 淑女의新明星 뽀아이에와競演사랑의甘酒에취하여伴奏하는相夫隣의一曲篇松竹會社提供 市川右太衛門프로덕순超特作을혹 웃든

時代劍劇篇 浪人太平記 市川右太衛門氏…主演 阿部正三郎氏特別出演 할로-ㄷ作品無聲映畵

喜活劇 拳鬪家大成功 監督…제이호氏 主演…후망크맛드파氏

第一劇場 鍾路五丁目 電光二七五番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光 一三五

五日夜부터 每夜二回 (晝一時、夜七時開幕)

東劇文藝部 劇 別莊과奇緣 一幕三場 海邊에서이러나는戀愛事件을그린 輕快한喜劇

次週上演名篇 林仙圭作「明暗有罪」三幕 崔獨鵑作「修道院」四幕

初秋명劇의名篇週間!! 九月四日부터超特別大興行!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위레-스폭스氏監督!

邪神島 레스터-뒤-나 지스도-마-나 레이몬 핫돈…… 共演

巡洋帆船의漂流과바다를부르지는太鼓의信號! 慘澹한戰慄의亂麻境! 怪慾과愛慾의交錯된絕海孤島의秘聞! 코-렴비아特作全發聲日本版 월니암벨氏監督作品!

九番目の客 도날드쿡 주네비-부도반… 主演

發信人不明의招電에依하여八名의客이雲集한빌딩! 그러나그들은모다서로反目하는處地이엿다 突然奇怪한放送으로부터의怪奇한放送은死亡宣言하엿다……?

大都映畵社超特作時代劇 石山稔監督作品!

伊之吉時雨笠 阿部九洲男 主演 大每特輯全發聲 國際ニュース

耕地復舊、代作等 災地各道에 指示

調査員을派遣實地調査後에 風水害根本對策樹立

今番 南鮮에對한 水害로 因한 田畓의 被害는 實로 想像以外로 深刻하야 그對策도 應急과 恒久를 別하야 極히 廣範圍로 根本的對策과 施設을 要하게될 모양인데 具體案은 方今 各道에 出張中인 調査班의 歸任을 기다려 愼重한 硏究를 거듭한 後에야 樹立될터이다 그런데 當場의 應急對策을 考慮하야 생각되는바는

一、流失埋沒된 耕地의 復舊策

二、浸水로 因하야 全滅된 水田等에對한 代作

三、田畓의 全滅 또는 大減收로 因하야 生計가 極窮에 빠진 農家의 救濟를 目標한 副業의 獎勵

等을 主目標로 總督府農林局에서는 水害地各道에 指示를하고 잇다 그指示內容에 依하면

一、의耕地의 復舊란것은 農家로서 가장 重大한일로 첫재는 自力에 依하야 最善의復舊策을 取하게하되 自力으로 밋지못하는바는 道當局에서그 助成方法을 講究케하도록 하자는것이다 即 急速히 排水를하며 泥土를 除去하며 倒伏된 作物을 이르켜세우도록 하려는것이나 今般 水害는埋沒流失의 程度와 面積이 甚함으로 自力으로 復舊할것은 一部大地主外에는 거이 업슬것으로推測되며 當局의 積極的助成策이 必要케될터이다

二、의 代作에 關하여서는 水田에 對하야 더考慮하여야할 모양이다 即 今般 水害는時期가 稻作의 穗孕期 또는 出穗期이엇기때문에 一兩日間의 浸水만으로 完全히 收穫皆無의 全滅을 보게된곳이 만흠으로 이런곳에 對하여서는從速 排水作業을 하야 小麥과 蔬菜等을 代作케하여서라도食糧補給에 努力하여야한다는것이다 水田뿐아니라 田作地에도 代作하여야할곳이 업지안흘모양이나 벌서 時期가만히 지낫슴으로 小麥과 蔬菜外는 適當한것이 업슬모양이다

三、의 農家의 副業獎勵는 恒久對策에 屬한問題인데 一般救濟策은 다른 方面으로도考慮될것이로되 農家로서는 副業의 獎勵란것이 또한 重要한것인데 一般的으로 獎勵될것으로는 가마니(叺)치기밧게 더나흔것은 아직 發見되지안는모양이다

何如間 今番水害에 對한 農家經濟、農業對策은 廣範圍로 當業者와 指導當局이 아울러 深甚히 硏究되어야할터이다

凶作、長霖으로 木浦海藻界不振

出廻數量半以上激減

【木浦】木浦港의 經濟界를 左右하는 海藻는 例年 八月末까지 八十萬斤以上의 出廻를 呈하든것이 今年은 稀有의 凶作에다 長霖으로 採取困難、惡天候로 乾燥不能하야 腐敗等으로 八月末까지 七十萬斤을 豫想하엿든것이 僅히 三十九萬七千斤이 出廻되얏는데 昨年 同期八十三萬斤에 比하면 四十三萬三千斤이 減少되얏다는바 去八月末까지 出廻累計를 種類別로보면 左와如하다

品名	數量	價格
眞布	三七、二五五斤	四四、七五〇圓
並布	一八九、四一九	八七、六九九
天草	六一、七六九	三五、四四〇
銀杏草	三〇、六九七	一五、二一九
櫻草	二〇、八八七	一三、五三六
이기쓰	三九、五一七	二一、五九七
오고	八、八三三	一、八二五
에고	一、三〇一	一五七
底布	一三三	六六
花布	一、三〇〇	一、〇六八
松布	三〇	三八一
雜草	一、七〇九	二二九
今年累計	三九七、八〇八	一八四、二一五
前年累計	八三〇、一三五	四三三、一七九

△……비개이면 무배차 속구기도 밥부다

專賣事業의 經濟的方面 (一)

最近 專賣事業의 槪要은 一般財政上에 重要한 地位를 占하고잇는 와 아울러 國民經濟上에 關聯되어잇는바 現在 日本內地의 專賣事業은 어떠한 狀態에잇는가 이를 專賣局長官 □□一郞氏의 言을드러 參考에 供하면 다음과갓다

一、專賣의特徵

現在政府의 事業으로되어잇는 煙草、鹽、樟腦의 專賣는 그起因을 政府의 財政收入을 엇는데 두엇든것으로 昭和十一年度의 豫算에 計上된 此等專賣事業의 益金은 實로 二億百八十九萬圓에 達하다 이 益金의 大部分은 煙草의 專賣에서 生하는것인데 이專賣益金은 政府의 財政收入上 酒稅와 竝立하야 가장 重要한 地位를 占하고잇는것은 말할것도업다 그러나 專賣收入의 特徵은 稅收入과는달라 國家스스로 事業을 經營하야 그收益으로 이를 充當함에잇다 따라 그國民經濟에對한 影響도 租稅와는 다르고 또 자못 複雜함에 注意하지안흐면안된다。

爲先 事業經營者로서 政府가 專賣를 爲하야 움지기는 金額은 收支合하야 一個年 五億六千二百餘萬圓에 達하고 이에 直接 從事하고잇는 政府의 職員 職工의 數는 三萬九千餘人 또 民間에서 直接 關係하고잇는 人員은 煙草小賣人 十八萬九千餘人 煙草耕作者 二十三萬餘、鹽製造人 三千餘、賣捌人及 小賣人合하야 十一萬四千餘、□□製造人千餘人이라는 多數에 達한다 其他 此等賣捌人 又는 製造人에 使用되는者와 事業用品의 供給과 專賣品의 運送保管等에 關係하고잇는者를 合하야 算하면 其人數는 實로 莫大할것이다

다음에 專賣品의 需要方面으로보면 그關係하는바는 一層廣汎하다 煙草로말하나 鹽으로말하나 全國民이 其需要者라고할수잇다 따라 專賣事業의 經營은 單只政府의 收益을 만케하는點으로만 생각할수업는것으로 需要者의 利益을 尊重하고 國民經濟의 進展—特히 今日의 農山村民의 生活安定等에 도움이 되도록 하지안흐면안될것이다 그狀에잇서서는 原料供給者인 農□우에 事業의 經營者로서 經營을 合理化하야 能率의 增進을 圖하지안흐면안될것은 말할것도업다

二、專賣品需要者의利益尊重

煙草는 國民一般에 가장 널리 普及된 嗜好品이오 鹽은生活의 必需品인同時에 化學工業의 重要한原料이오 또 樟腦는 主要輸出品인 세루로이드의 主要한 原料이다 따라서 그品質 價格、供給數量의 如何는 곳國民의 日常生活 及產業上에 큰影響을 齎來함으로 于先그需要者에十分 滿足을 주도록 努力하지안흐면안된다 此方針下에 事業을 經營하고잇는데 이때까지 行한 主要한 事項을 擧하면 如左

(가) 煙草의嗜好變遷과그對策 煙草의嗜好는 漸次 刻及口付等 在來의 日本葉을 原料로하는것에서 兩切과如히 主로 米國種의 葉煙草를 原料로하는것으로 옴마기고잇는것은 一般國民生活樣式의 變遷에서 이러나는 不得已한現象이다 煙草專賣의事業에 從하는者는 此嗜好의變遷에 適合하도록 製品種類를 하지안흐면안된다 그러치안흐면 其嗜好에 適合한 外國製品을 輸入하거나 或은 外國葉의 原料를 多量으로 輸入하게되어 外國에 對한 支拂을 만케할뿐아니라 日本內地의 原料葉耕作段別은 減少하고 製造數量도 減退하게되어 農村 及 都市勞働者의 生業도 失케하게될것이다

그럼으로 미리 이에 備키爲하야 日本內地에서 耕作하는葉煙草의 品種을 日本葉에서 漸次 米國種으로 轉換하야 今年度에잇서서는 全國三萬五千六百町步의 耕作段別中 米國種은一萬四千九百町步를 占하게되엇다 또 製造方面에잇서서도 새로兩切煙草의 製造工場을 設하고又는從來의 工場의 製品種類를變更하야 漸次兩切煙草의 製造를 增加하야 此亦今年度에잇서서는 口付煙草百十萬本、刻煙草二千百萬斤에對하야 兩切煙草는 二百九十億本을 製造할計畫으로되어잇다

(나) 日本內地鹽의販賣供給과 工業用鹽移入鹽의供給施設

鹽은 國民生活의 必需品인同時에 重要한 工業原料임으로그 品質을向上하고 價格을 低廉케하며 供給을 圓滑케함에對하야서는 벌서부터 注力하고잇는바이지만 近時 生產條件의 有利한 外國鹽에 對抗키爲하야一層 그緊切의 度를加하게되엇다。

最近에잇서서는 鹽業者도 크게自覺하고 大規模의 機械製鹽의方法에 依하야 生產費를 低下할計畫을 세우는者가 增加하야數年內에 日本內地 製鹽界도 其面目을 一新하게될것이다。

그러나 日本內地 製鹽만으로는 그價格上으로나 또는數量上으로도 食用鹽의 需要를充하수잇슴으로 工業用鹽에對하야서는其 需要가 巨額에達하고 또價格도非常히低廉함을 要하는 關係로 日本內地鹽을 充當하기는 不可能하야 結局 移入鹽을 仰하는外에 업다 그런데 그供給地는 今日에 잇서서는 소마리란드、에리트리아、埃及、佛領印度、中國等 日本과는 距離도 멀고 또 經濟的關係도 깁지안흔 地方이 만허 一朝有事之時는 或은 輸入이 不可能하게될 念慮가 잇다 따라 이를 近距離 또는 經濟關係의 密接한 地方으로부터 輸入하도록 努力할 必要를 感하고 最近 滿洲國及 北中方面의 增產 及 日本內地에의 輸入에 對하야 調查를 進行하야 이미 實行에 入한 狀況이다.

(다)세루로이드原料樟腦의供給施設

樟腦는精腦及龍腦의製造原料、製藥原料、無煙火藥의製造原料等 各種의 用途를 有하나 가장 主要한것은 세루로이드製造原料로 日本內地產樟腦의 거의 全數量(約二百七十萬斤)이 세루로이드의 製造에 使用된다 그리고 세루로이드工業은 最近 製品輸出의 增進에 伴하야 顯著한 進展을 示하야 原料樟腦의 需要는 生產量을 顯著히 超過하는 現況에 鑑하야 製腦業者에 對하야 生產設備의 改善을 獎勵하는 同時에 樟樹의 增植을 目的으로 年年 百二十萬本의 苗木을 養成하야 民間造林者에게 無償配布하는 等의 施設을 講究하고잇다 이리하야 一時 外國產人造樟腦의 競爭으로 苦境에 陷入하얏든 樟腦界도 今日은 順調로운 發達의 經路를것고잇다

漁業의基礎인 漁場圖整備

十二年度부터着手

朝鮮의 漁業은 玆數年來 飛躍的發展을 遂하야 水產額과如함도 一億三千萬圓을 凌駕하는터이 漁業의 基礎가되고 漁業權의對象이되는 漁場의 查調는 자못 不備한 狀況에 잇다 即朝鮮의 漁場圖의作成은 明治四十年乃至四十五年頃의 作成으로 그後其原本에基하야 何等의 修正도하지안혓슴으로 其後의 漁場變遷 及 當時의 幼稚、粗漏한 測量技術로 時代에全然 適應치안흔 不備를示하고잇다

殖產局에서는 이 漁場圖의不備에鑑하야 十二年以降에 이漁場圖의 整備에 進出하기로되엇다 이實現은 漁業權의 紛爭을 根絶하고 各道間에 漁場圖의區區를 生함과如한弊를 根本的으로 一掃하려는것이다

麗水棉作全滅狀態

【麗水】이번 暴風雨에 麗水의 被害는 目下 判明中인데 九月一日까지에 判明된 產業關係의것을 드러보면

▲船舶被害 流失一七隻 全破二隻 破損六二隻 漁船破損四二隻 向方不明四五隻

▲道路被害 決壞一、〇六〇米 破損四、七六五米

▲橋梁被害 墜落一 流失三

▲堤防被害 決潰三〇六米 破損七七八米

▲農作物被害 田畓六八四町步九八

以外 淸島面은 交通이 不便한 關係로 調查가 아직 詳細치못하나 島嶼인만큼 莫大한 被害가 잇스리라고 推測된다 그런데 麗水農作物中 가장 重要한 棉花가 全滅狀態이므로 農民은 크게 恐慌을 늣기고잇다

朝鮮產羊毛의 大量的移出

今年처음으로遂行

朝鮮產羊毛는 指導獎勵三年次의 今年에至하야 비로소 大量의移出을 行하게되엇다 即 一月中雄基、城津兩地로부터 東京陸軍納入으로 雄基積 一七、七九四斤、一萬六百六十圓 城津積數量不詳三千八百圓 計一萬四千四百六十圓이移出되엇다 再昨年以來의 移出은 小量式의 分送이엇스나 今年부터는 統制出荷한것이다

義州郡에서 羊毛工場設置

職工을募集養成

【新義州】平北義州郡農會에서는 道內에 生產하는 羊毛를 利用하야 製織工場을 義州邑內에設置하려고 計劃中이든바 數日前 事業開始하기로 決定이 되엿슴으로 十月一日부터 二個月間 職工을 養成하려고 技術傳習生三十名을 採用하야 技術實地講習을 식히기로 되엿다고 한다

純系平壤栗의 芽接을試驗

優良品種統一圖謀策

【平壤】平南道山林課에서는 特產平壤栗의 優良品種統一을爲하여 前年以來 道指定母樹林에서 分離한 純系平壤栗의 接穗를하여 朝鮮栗과 形質不良한 平壤栗의幼壯齡樹에對하여 接木을實施한結果平均七割程度의活着의實績을보고잇는바 다시今秋에도 그活着한穗木에서 接芽를 採取하여 一年生의 苗木과 伐除할不良樹 그리고 今春에 活着하지안흔砧木의 根幹에서 發生한 一年生의枝條에對하여 成川外二個所에서 六百株의芽接試驗을 實施하기로되엿는데 이試驗은 伐除樹의 萌芽를利用하는同時에接木의確實性을 一層强化하고 또萌開期에 實施할수잇다는 特點으로보아그結果는 極히期待된다고 한다

中央市場府營案 本格的으로計畫樹立

곳設計에着手할貌樣

京城府의 中央市場建設에 對하야서는 斯界의 權威者 大野勇氏를 囑託하야 調查中인데 同氏는 先般來京後 日本內地에 旅行中이든바 다시 八日 入京하야 곳 設計에 從事하기로되엿슴으로 京城府로서도 드듸어 本格的으로 中央市場經營의 計畫을 樹立하기로되엿다

病牛의取扱과 加療는이러케 (上)

病牛의徵候

病牛의 徵候는 疾病의 種類에 依하야 差異가잇지만 一般的으로 元氣가업고 擧動이 不活潑 또는 不穩躁擾하야 頻繁히 발로써 땅을차고 그며 腹部를차고 또는 食慾이 減退하고 反芻가 不正하며 흔히 鼻鏡이 乾燥하고 皮溫이 不正한때는 發汗 又는 戰慄하기도하는데 時日을 經過하는때는 被毛의 光澤이적어지며 體軀가 漸次로 瘦削되어 드듸어 起立이 不能하야 橫臥하게된다

病牛取扱法

大要 病牛는 親切丁寧히 取扱하야 些少한 異常이라도 잇느냐 업느냐 함을 늘細心히 注意하야 보는同時에 病이 速히 낫도록 하지안흐면아니된다 그러치안흐면 病이 漸漸 더하야 長久한 時日을 經過하는등안에 조치못한 結果를 招來하기 쉬우므로 病牛의 取扱에 잇서서 不注意는 絶對로 禁物이다 이제病牛取扱에 對한 重要한 注意事項을들면 다음과갓다

傳染性病牛의取扱法

傳染性病牛에對하야는 法規의 定하는바에 依하야 特別한 取扱을 할것은 勿論이어니와 往往히 이것을 等閑視하기때문에 傳染되어 多數의 斃死를내는일이 적지안흐므로 深甚한 注意를하야 그런일이 업도록 努力할 必要가잇다 例컨대 牛疫、炭疽、氣腫疽、流行性鵞口瘡等에걸린 病牛의取扱은 傳染性이잇는 皮膚病 即 疥癬性蕁麻疹等과가티 主로 病毒의 傳播를 豫防함이 必要하다 그럼으로 用具飼草의 處置 敷具 牛舍內及 그에쓰는 器具가튼것의 消毒은 無漏히 實行하지안흐면 안된다 萬若에 이것을 게을리하는境遇에는 多數의 病牛의發生을 보아 被害가 莫大하게되는것이다

病牛의繫索法

病牛의 繫索法의 如何는 治療上 極히 密接한 關係가잇슴으로 特히 注意하지안흐면 안된다 即 그結索法이 조치못하면 往往히 病牛의 騷擾에 依하야 自然解脫하야 여러가지 禍害를 招來하는일이 만타 例示하면 病牛는 疾病의 種類에依하야 이때에 興奮 또는 驚怖하야 舍外에脫出하야 意外의 危難을 맛는일이잇고 또 平素에 突癖이 잇는 牛는勿論이어니와 그러치안흔牛라도 이것이 原因이되야 人畜에危害를加하며 드듸어 前述한바와가튼 結果를 보게될것이다 그리고 局部纏帶 或은 包帶한 病牛는 그때문에 諸物과의 摩擦에依하야 脫離 又는 破裂이되는 境遇가 잇스며 特히皮膚에 刺戟劑를 塗擦하엿슬때는 그部位는 顯著히痒覺을 感하게됨으로 舍壁 其他에 摩擦하야 그結果 病狀을 더욱 惡化식히게되는 그밧게 繫索法의 良否는病牛의 起臥、採食에 不便을 줌과如히 影響하는바가 큼으로 病牛의 繫索에잇서서는 細心한 注意가 必要하다

牛舍內淸潔法의履行

糞尿는 病中에對하야 不快한 瓦斯를 發生하고 舍內의 空氣를 汚染할뿐만아니라 蹄底에 密着하야 蹄叉腐爛을 發生식히다 그럼으로 糞尿는病中의 排泄時마다 반드시 舍外一定한 場所에堆積할것은勿論 飼槽의唾液、鼻汁、飼料給與때문에 不淸潔하게되어 消化器病의 原因이되기쉬우므로 늘 淸潔에 注意하지안흐면안된다

舍內換氣法의注意

冬期에 防寒設備를 한때는 舍內의 空氣는 病牛의呼吸及 糞尿의 排泄物等에 依하야 잘 汚損하게되슴으로 舍內의 空氣는 不潔하여지므로 適當히 新鮮한 空氣의 換氣를 行할것이다 이에 反하야 防寒設備의 不完全으로 周壁 其他에 間隙이잇서서 賊風이 侵入하게되면 곳 그侵入의 防止에 努力하야 感氣 其他의 疾病이 發生안하도록 豫防에 努力하지안흐면안된다

舍內溫度의注意

病舍內의 溫度는 너무 놉거나 나즈면 病牛의 衛生上 자못 有害하다 그러므로 牛舍에 依하야 臨機의 措處를 할 必要가 잇다 即 冬期는 適當한 保溫에 努力하고 夏期에는 淸凉하게할 撒水를 하는것과가튼 便宜한 方法을講究하야 늘 溫度의 調節에 注意할일이다。

蓐草寢藁의給與法의注意

蓐草의 給與는 그量의 多寡에 依하야 舍溫에 關係가 잇슬뿐만아니라 늘 新鮮한것을주지안흐면 局部的創傷牛에 잇서서는 이것을汚損하며 또 虛弱한 病牛에잇서서는 蓐瘡을 生하기 쉬우므로 病牛의 舍內에는 늘 淸潔乾燥柔軟한 것을 두터웁게 깔어줄것이다 特히虛削한 病牛 或은 이미 橫臥한牛에對하야는 特히 注意하야 時時로 牛體를 反轉하야 藁의接觸面을 生하지안토록 新鮮한 蓐草를 布給하고 頭、頸에는 束藁의 軟枕을주어서 極力病牛를 慰撫하기에 努力할것이다

飼料給與法의注意

病牛에 對하야는 消化하기 쉬운 飼料를 撰飼料로 하야 給與할必要가잇음은 勿論이어니와 重症牛로 이미누어잇는 牛에對하야 水飼를할때는 特히 漏精的方法에 依하야될수잇는대로 頭를 仰하게하고 頸及肩을 支持하고徐徐히 給與함이조타

쓰다듬어줄것

쓰다듬어주는것은 按摩 或은 沐浴과 同一한效果를 나타내는것으로 特히 病牛에對하야는極히 必要한것이다 이것을 行하는 境遇에는 前述한바와 가티 濃情으로서 病牛를 安慰식히며 皮膚를 摩擦又는 솔가튼것으로 皮毛를 잘쓰다듬어줄것이다 오래 起立한病牛에는 特히 四肢를 摩擦할 必要가잇다 但 治療때문에刺戟劑를 塗擦한 部分은 이것을 行하지안흘것이다

排糞尿의狀態注意

病牛에對한 糞尿의 停滯 排泄의難易 異物의有無等은 治療上極히重要한事項임으로 늘 그狀態에注意할것이다

病牛의誘導法

病牛를 誘導함에는 반드시 溫和한方法으로써 그症狀에 適應한 手段을 씀이 必要가잇다 即 一肢가 跛行하는 病牛의 直線行進을 식히는 境遇에잇서 誘導者는 患肢의 對側에서 轉回하는 境遇에는 決코 患肢를 內側으로하지말고 또一肢以上의 跛行牛는 極히 緩且徐徐히 引導할것이다 그러치안흘때는 跛行은 더욱 甚하야저서 때로는 轉倒하야 드되어 意外의 災害를 招來하는일이잇다

日用商品市況

漢藥 (京城七日現在)

開城人蔘(一斤) 一等 二〇片 一〇、二〇 三〇片 一〇、〇〇 八〇片 七、八〇
二等 二〇片 八、五〇 三〇片 八、五〇 八〇片 七、五〇

天麻	一、三〇	赤箭	品切
白朮	、三〇	蒼朮	、五〇
狗脊	、三〇	巴戟大	、四七
遠志	、六〇	仙茅	、五五
玄蔘	、五〇	地楡	、三〇
丹蔘	、五〇	紫草	、四〇
白茯	、六〇	黃連	、五五
胡黃連	、八〇	黃芩	、五五
藥朮	、六	柴胡	、五五
前胡	、六	防風	、五五
羌活	、四〇	獨活	、六
升麻	、五〇	苦蔘	、一〇
白鮮皮	、三〇	延胡	、三〇
貝母	、八〇	龍膽	、六
細辛	、五〇	川芎(土)	、四〇
白芷(唐)	、三〇	白芍藥	、四〇
良薑	、五〇	白豆蔻	一、七〇
砂仁	、八〇	益智仁	、五〇
肉豆久	、五〇	破古紙	、三〇
鬱金	、三〇	莪朮	、五五
香附	、一〇	藿香	、四〇
澤蘭	、一〇	香薷	、六
荊芥	、五〇	薄荷	、五〇
紫蘇葉	、五〇	蘇子	、六
茵蔯	、五〇	益母草	、六
胡芦巴	、六	蒼耳子	、五〇
麻黃	、一〇	木賊	、一
燈草	一、〇〇	生地黃	、三〇
牛膝	、五〇	白葵花	四、〇〇
決明子	、三〇	車前子	、五〇
連翹	、五〇	篇蓄	、三〇
大黃	、三〇	附子	三、〇〇
大戟	、三〇	白附子	、三
南星	、三〇	半夏	、八〇
生兎絲子	、五〇	沙蔘	、五〇
白扁豆	、五〇	五味子	、五〇
使君子	一、五〇	瓜蔞仁	、五〇
五加皮	、五〇	枸杞子	一、一〇
牧丹(土)	一、五〇	香豆	、八〇
白茯苓	去脉自一、五〇至二、〇〇以上		
上白茯神	自五〇錢以上至三圓以上		
琥珀屑	、八〇	桔梗	、五〇
竹葉	、六		
竹茹	、五〇	白介子	、五〇
乾薑(土)	、六〇	覆盆子	、三〇
龍眼肉	、八〇	蓮肉	、五〇
神曲	、三〇	麥芽	、三〇
五倍子	、三〇	鼈甲	、六〇
鹿角膠	、三		
朱砂	四、三〇	靈砂	四、六〇
石膏	、一〇	滑石	、一〇
硫黃	、一〇	白礬	、一〇
甘草	一束	豐	小三〇
從蓉	生一斤、八〇	法一斤	一、六〇
當歸	皮一斤、六	製一斤	、五〇
熟地	封品、三〇	特品	、四〇
澤瀉	唐一斤、八〇		十三、〇〇以上
枳殼	一號 三〇	二號	二六
鹿茸	一兩	自三、五〇至十七圓以上	
熊膽	一分		三、五〇
麝香	同		一、〇〇
竹瀝	小瓶		、三〇
檳榔	上一斤、三	中一斤	、三〇

=天一藥房調査=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四〇九	金銀鑛	平北熙川郡東倉面	八月十五日	京城府御成町 代表者 元胤洙 同樂園町 劉洪 同社稷町 李鉉永
一三四一〇	同	平北熙川郡東倉面	同	京城府御成町 代表者 元胤洙 同樂園町 劉洪 同社稷町 李鉉永
一三四一一	同	全南靈光郡弘農面	同	京城府和泉町 代表者 朴性明 同竹添町 黑沼基淑 高敞郡高敞面 金相鎬
一三四一二	同	全南靈光郡弘農面	同	京城府和泉町 代表者 朴性明 同竹添町 黑沼基淑 京城府壽松町 李基鐠 高敞郡高敞面 金大衡
一三四一三	同	全南光山郡林谷面 河南面	八月十七日	京城府延禧町 代表者 金柄洙 木浦府陽洞 金漢鏞 光山郡河南面 朴鐘后
一三四一四	金銀銅鉛亞鉛鑛	咸南新興郡東古川面	八月十五日	京城府南大門通 朝鮮鑛業開發株式會社
一三四一五	同	咸南新興郡東古川面	八月十七日	京城府光熙町 野附勤一郞
一三四一六	金銀鑛	慶北盈德郡柄谷面 江原蔚珍郡平海面	八月十七日	盈德郡寧海面 代表者 南孝會 同 南柄元 同蒼水面 李謙浩 同寧海面 權寧秀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〇六七四	平北昌城郡田倉面 碧潼郡松西面	八月十三日	洪錫成任意脫退

黃昏 (175)

韓雪野 作 安夕影 畫

대체 (六)

「사람이 누가 허물이 업겟소만 가령 일시의 충동으로 우연히 지은 허물이라든가、또는 한번 그리고 이어 끈친다든가 하면 물론 용서할수도잇겟지만 명면(名面)은 그냥은생각가을 점점 더키여가면서 겻사람까지 혼쓰러널라고 든다말요」

하고 주임은 더말을 이어서

「아마 왜、그전의그·조첨·하기 특별상여(特別賞與)때에도 말요. 멧이 멧이 방해를 해서 충실히 일하는 사람까지 상을 타지못하게 하지안헛소? 그리고 또 화수가 부상당햇슬때만 하더라도 조치못한 눈치가 여간 만치안헛단말요…… 어듸 그뿐이가 직공이좁다가 제절로 손구락을다친것까지도…」

「그때는 저도……」

「아니 동필이는 처부터 현의적으로 나왓스니까 별로 문제될거 업지만……엇잿든 면면때문에 여러사람이 여간 손해가 아니란말요。허니까 면사람 낫분자에게 필요 업는 관대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찬심히 일하는 여러사람의 리익을 히생시킬수는 업는거 아니겟소? 대체로 보아서……」

「글세올시다。그야 물론 회사에서 일하이겟지만……」

하고 동필이는 어름어름 이러케 말하엿스나、한편 씩씩히 날뛰든 넷날의 기억도 엽마간 남아잇고 또 가튼처지를 동정한다는 막연한 량심때문에도 약간은 남아잇서서、

「그러치만 좀더……길히 꼬려할 필요가 업슬런지요」

하고 말하엿다

「아니 그건 내권한에만 속한 문제가 아니고 사장이하 중역들이 대체로 결정하는거니까물론 잘처리할줄 아오」

주임은 자기가 맘먹고 잇는 바를 솔직히 말하는것이 조흘지 엇절지 몰라서 책임을 사장과 중역들에게 밀어노코 말을이어서

「그런데 나는 발서부터 이러케 생각하고 잇는데 동필이생각은 엇덜른지?즉 위선 동필이가튼 사람이 직공들의 모범이 되도록 솔선해서 나서면엇덜지……」

하고 슬적 동필의 눈치를 살핀다。

「모범이오?……어듸 그러케될수잇슴니까?그저 한편구석에서 못난이노릇이나 하고잇는 판인데요」

하고 동필이는 씽긋웃스며 지금 자기가 취하고잇는 태도를 서실대로 정돈해 말하엿스나주임에게는 그것이 딴의미로 들려서

「아니 동필에게 대해서는 나도 이미 생각한바가 잇소。그 남을 지도하고 단속하자면 그만한 자리와대우를 먼저 가저야할것은 물론이지。엇잿든 그건 내게 일임해주오」

「아닙니다。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라、나는 그저 일개의 직공으로 아무데도 상관하지안켓 금후도 물론그럴 생각입니다」

「그건 겸손하는 말이겟지만… 사실누구나누구나해도 동필이를 신임하는사람이 대부분이거든。제일 오래된사람、즉이공장의맨 중요한 직공들은 누구보다 동필이말을 제일어렵게알지안소? 그러니 그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러케만 잇슬수업는거라말요 허니까 남의 위되는사람은 후어식불일도 하는수잇는거고따라서 그만치 입불(勞)도 만흔 법이거든」

「아닙니다。저가튼건 밥서려 바거 물러나지가 오헤니다」

「오、그러리가잇소? 내가 그 속에서 큰사람인데 그만 눈치야 모르겟소? 면면낫분자가 잇서서그러치 그런것만 처치를 하면 아주 리상적으로 될수잇단말요。지나간 일이지만 하기 특별상여때만해도 동필이가 솔선해서 직공들을 일깨여주엇든면 모다 그대로 따라가서 아주 잘됏슬거란말요…… 그리지안허도 요새 일본내지에서 오는소식을 들으니까 공장내에서 직공들이 자진해서 능률증진회(能率增進會)니 무어니 하는걸 만들어간다는데、우리공장에서도 동필이가튼사람이 압서서 친목회가튼거라두 척만들어보구려 모두들 기뻐서 따라오지안나?」

하고 주임은 좀더 어조를 굿게하며

「여러사람을 위해서 한번 라상을 베푸러보는것이 어떠켓소? 물론 그리하는데 필요한자리와 편의는 충분히 고려해줄거니……」

「아니올시다。처재 저가튼사람은 인제 일반의 신임도 업고 또 저자신이 제마를일이나……」

하고 동필이가 사양하는것을 주임은

「아니 적우간 좀더 충분히생각해보우 사장도 랑해하는터아니까……자아 그만한일고 동필의 안(案)을 하나 만들어보란말요 푹그러케 밋겟소」

하고 다짐고짜로 두려히 씨이듯이 말하엿다